

외국산 담배업계 군납 선정기준에 뿔났다

필립모리스, '납품결정 무효 확인 소송' 제기 "9년 간 평가 기준 투명하게 공개해야" 주장

올해 국방부 국군복지단의 군납 담배 입찰을 앞두고 외국산 담배들이 총성마트(PX)에서 팔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년간 KT&G의 독점이 이어지자 필립모리스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외국산 담배들이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필립모리스는 지난 3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납품결정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지난 9년간 군납 결과와 관련해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장병 연령대에 선호도가 높고, 시장점유율에서 높은 브랜드들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현재 PX 입점 심의는 매년 3월말께 국방부 국군복지단에서 실시한다. 기존에 PX에서 판매되던 제품 중 판매

가 저조한 실적 기준으로 퇴출 품목을 결정하고 매년 새로운 브랜드를 추가한다.

지난 1일 2016년 국군복지단 마트 일반담배 납품품목 선정 공고'를 낸 군 복지단은 이날(4일) 심의서류 제출을 마감하고 현장 실사 등을 거쳐 12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은 국방부 및 육·공군 대표(장교·부사관·군무원·병) 중에서 흡연자로 구성하며, 청 브랜드 중 맛 디자인 가격 등을 고려해 고득점 품목을 선정한다.

하지만 외국산 담배 업계는 2007년 이후 입찰에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 이해하기 힘들다며 선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2007년 장병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경쟁 입찰을 도입해 참여하고 있지만 매년 떨어져 기대하고 있지 않다"며 "군인들이 일반 소비자와 같은 값을 주고



시아하는 순수 소비자가 된 상황에서 외국산 담배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선정되는 브랜드를 보면 시장 점유율이 0.1%인 등 납품할 수 없는 경우가 꽤 있다"며 "실제 소비하는 20대 장병들의 선호도가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한 관계자는 "매년 입찰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는데 번번이 실패해왔다. 올해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외국산 담배들이 판매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공영위 시정조치가 내려진 지 1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성주기자



아이들이 곤충산업 시식코너에서 튀김과자를 맛보고 있다.

곤충산업규모 5000억으로 확대

정부, 5개년 육성계획 발표

정부가 농업의 블루오션 분야로 일컬어지는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은 곤충산업 규모를 현재의 1.7배인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시육농가는 1.65배인 1200호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10년부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곤충산업 활성화를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곤충이 식품원료로 인정되는 등 일반 소비자와 예비농업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곤충산업의 세계시장규모는 2007년 11조원에서 2020년 38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용도의 확장에 따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농업,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산업 전반의 성숙도가 낮은 편으로 시육농가의 시설

및 생산규모는 다른 농업에 비해 영세하다. 시장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우선 소비·유통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된 '곤충 유통사업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각 지역 농가에서 납품된 곤충을 건조해 제품판매 업체에 안정된 품질로 제공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주요 용도별로 곤충산업 지원체계를 수립한다. 사료, 식용 등 대량소비 가능성이 높은 농가 소득창출 기여도가 큰 분야는 개별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비용을 낮추고 사육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선 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곤충사육사, 저장고 기자재를 신속 및 개보수할 수 있는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의 용자지원 규모를 올해 39억원에서 내년 1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성주기자

전기안전공, 희망공부방 참여 대학생 장학금 전달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는 4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케스코(KESCO) 희망공부방 멘토로 참여한 대학생들을 초청해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케스코 희망공부방'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마련한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다.

올해로 2년째이며 지역사회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대학생들을 멘토로 연계시켜 1대1 학습지도를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은 전주대 전기전자공학과 최민재, 김민지, 강성준, 김형주 등 4명이다. /신광영기자

전방, 익산공장 철수 검토 철회

익산공장 철수까지 검토했던 국내 대표 방직업체인 전방(주)이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익산시는 익산공장 이전을 검토했던 전방이 그 계획을 철회하고 조업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방은 총 사업비 2000억원을 투자해 익산일보산(업단지) 내에 대규모 방직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2013년 설비 투자를 목표로 1차 공장을 준공 생산에 돌입했으나 각종 문제로 인해 기업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됐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시의 적극적인 민선로 익산공장 철수를 보류하고 조업을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전방 조규욱 회장은 익산공장 직원들과 협력업체, 거래처 등이 일게 될 어려움을 알고 있어 이전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익산공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4일 전북 e스포츠 페스티벌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갖고,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 e스포츠 페스티벌 자원봉사자 발대

덕진 소방서 안전교육 받아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4일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3층에서 전북 e스포츠 페스티벌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가졌다.

도내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24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전북 e스포츠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동안 관람객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발대식을 통해 행사 진행 교육 및 덕진

소방서의 안전교육을 받았다.

이날 자원봉사 발대식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에도 e스포츠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태어난 전북에서 최초로 열리는 e스포츠 페스티벌의 열기를 직접 느끼고 싶었다"며 "전북 e스포츠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운영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이신후 원장은 "전국 e스포츠 대회 자원봉사자 헌명 헌명이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방문객들로 하여금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면 그것만으로 페스티벌은 성공을 거둔 것이다"고 격려했다.

한편 전북 e스포츠 페스티벌은 오는 4월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총 4일간 전주 실내체육관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모든 경기는 CJ E&M의 OGN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관련된 예매가 진행되는 중이다. /신광영기자

전북농어촌공, 7일부터 농업용수 공급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학원)는 이날 7일부터 농업용수 공급을 시작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도내 13개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모아 농업용수 1,044천톤을 확보했다.

전북지역본부 관리 저수지의 현재 평균 저수율은 70.9%로 평년의 88.3% 수준이며, 평년대비 저수율이 50% 미만인 저수지는 작년 말 22개소에서 4개소(군산 옥녀제, 완주 대이제, 경천제, 익산 미륵제)로 감소했다.

전북본부는 확보한 용수에 대해서 가뭄 예상지역에 저수지 물 채우기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과

분격적인 영농급수를 통해 농민들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저수율이 평년대비 60% 미만인 저수지 4개소를 파악해 용수 확보대책을 수립하고 양수장류, 간이양수장 설치, 관정 가동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학원 본부장은 "작년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며 올해는 선제적으로 용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면서 "혹시 모를 가뭄을 대비, 올해의 경우 모태급수(못자리급수)를 지역어건에 따라 지양하는 등 농업용수 절약을 통해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신보, 희망창업아카데미 개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 이하 '신보')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에서 2016년도 제1회 희망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창업 준비단계에 있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교육인 '창업아이템과점'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또한 희망창업아카데미 수료생에 대해 예비창업보증 등의 금융지원 이외에 경영컨설팅 연계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강 희망자는 신보 홈페이지(www.kdit.c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면 된다. 수강생 선발 시 유망창업자를 우대한다. /정영수 기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